

2009. 2. 2 제208호

# 세계도시동향

# 세계도시동향

2009. 2. 2 제208호

## 목 차

### 산업·경제

1. 2층 관광버스 도입 후, 이용객 60% 증가 (브라질 쿠리치바市)
2. 중소기업의 도쿄 진출을 돕는 '브릿지 헤드' 사업 시행 (도쿄)
3. 지역력 재생 관련 제안 모으는 '내일의 힘' 콘테스트 실시 (교토府)
4. 서비스 기업 관련 9대 정책 실시 (상하이)
5. 신차 구입하면 세금 감면에 보조금도 지급 (중국)

### 건강·복지

6. 노숙자 귀향 지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7. 난방비와 보조금 혜택 홍보하는 '알 권리' 캠페인 (런던)
8. 공공기관의 계층 간 격차를 줄이도록 법적 의무 부과 (영국)

### 행정·재정

9. 사회연대 정책 확대와 역동적인 도시발전 계획 추진 (파리)
10. 웹사이트 통해 민관이 함께 건축 감독 (베를린)
11. 민간기업과 협력해 식물원 보수·유지 (브라질 쿠리치바市)

## 목 차

### 도시환경

12. 시민과 함께 기후변화 대처에 나서 (벨라웨어주 윌밍턴市)
13. 사라져가는 참새가 돌아오는 도시공원을 만들자 (런던)
14. 녹색경영으로 불황 극복하는 기업 후원 (런던)
15. 기후보호 위해 시립 임대주택회사 참여 (베를린)
16. 자연형 하천 복원으로 야생동물도 살게 하고 침수도 예방 (런던)
17. 희소 금속자원 재활용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 회수 실험 (도쿄)
18. 이산화탄소 저배출 경제전략 발표 (영국)
19. 환경보전형 농업과 유기농업 추진 (도쿄)

### 도시교통

20. 교통공사가 적극 나서 영화 촬영하도록 정보 제공 (런던)
21. '도로교통 게임' 통해 도시를 공유하자 (과리)
22. '핸드폰 주차' 확대 시행 (베를린)

### 1. 2층 관광버스 도입 후, 이용객 60% 증가 (브라질 쿠리치바市)

○ 쿠리치바市는 2008년 12월부터 2층 관광버스를 새로 도입해 운행하기 시작함.

- 2주간 관광버스 이용객 수가 1만 6000명에 달했는데, 이는 2007년 같은 기간 이용객 수에 비해 60% 증가한 것임.
- 2층 관광버스는 약 40km를 운행하면서 25개 관광지를 지나감.
  - 버스요금은 16헤알(약 8000원)이며, 버스를 세 번 갈아탈 수 있음.
  - 버스의 2층은 지붕이 없어 경치를 즐길 수 있음.

([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15142](http://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15142))

### >>> 전문가 검토의견

- 세계 주요 도시들은 관광객에게 시티투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도심투어 교통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음.
  - 유럽의 도시들을 비롯해 싱가포르, 뉴욕, 시카고, 시드니에는 주로 2층 오픈투어버스가, 호주 멜버른市나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市에는 유·무료 도심투어 트램, 상하이市나 유럽 몇몇 도시는 도심 단거리 투어용인 코끼리열차 등 다양한 교통수단 형태로 도심투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글로벌 도시들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쿠리치바市의 2층 관광버스는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나, 서울시의 도심투어버스의 인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는 시내버스 내부를 개조해 도심투어버스 5대를 운행해오다가 2007년 투어 전용 최신 2층 버스를 추가로 도입해 총 7대의 투어버스를 운행 중임.
  - 하지만 이용 관광객 수가 계속 줄고 있어 운영방식 전환이 필요함.
  - 투어버스 정거장 표식, 요금 및 운행시간 체계, 안내문 및 다국어 음성 안내, 버스 형태, 홍보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금기용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kykeum@sdi.re.kr)

## 2. 중소기업의 도쿄 진출을 돕는 ‘브릿지 헤드’ 사업 시행 (도쿄)

- 도쿄都是 사무용 빌딩을 빌려 전국의 중소기업에 저렴하게 제공하는 ‘도쿄 브릿지 헤드 사업’을 2009년 시행하기로 함. 지방 중소기업에 새로운 도전 기회를 주고 도내 기업과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함.
- 도쿄는 일본 내 우수 대학 및 연구기관이 집약돼 있고 거대한 시장이 형성돼 있으며 훌륭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곳임.
  - 하지만 도내 임대료는 매우 비싸 도쿄에 발판이 없는 중소기업이 진출하려면 부담이 큼.
- 입주 대상자는 도쿄에 진출하려는 의욕이 있으며 창조적 도시형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임.
  - 총 24평 시설을 1평 단위로 계약할 수 있고, 이용요금은 월 6만 엔(약 90만 원)임.

([www.metro.tokyo.jp/INET/BOSHU/2008/12/22ic3400.htm](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08/12/22ic3400.htm))

### >>> 전문가 검토의견

- 입지 경쟁력이 도시 경쟁력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지식기반형의 대도시 산업 구조에서 적절한 입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공공정책이 필요함.
  - 특히 지불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입지 지원은 도시산업 정책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음.
- 이런 맥락에서 공공 주도로 추진되는 임대형 입지지원책인 도쿄의 ‘브릿지 헤드 사업’은 중소기업을 위한 입지지원책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서울시도 이러한 추세와 필요성을 인식해 ‘산업 시프트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특히, 도쿄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제도 도입 시 시설의 입지나 지원대상 영역의 전략적 선택, 운영시스템과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제도 설계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정병순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jbs66@sdi.re.kr)

### 3. 지역력 재생 관련 제안 모으는 ‘내일의 힘’ 콘테스트 실시 (교토府)

○ 교토府는 지역력 재생 관련 행정 및 시책에 관한 제안을 모집하기 위해 ‘내일의 힘’ 콘테스트를 실시하고, 수상자를 발표함.

- 교토府지사상을 받은 제안은 ‘실시간 환경 맵을 통한 사토천(里川) 부활’임.
  - 하천 주변을 지도로 제작해 웹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 순찰로 쓰레기와 수질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하천의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
  - 하천 주변의 이용자나 지역 주민의 참가를 유도해 불법 투기 등 하천 환경 악화를 시민참여형 해결책으로 막는 것이 목표임.
- 그 외 수상작은 다음과 같음.
  - 와즈카 마을의 특산품인 차(茶)를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일종의 그린 투어인 ‘와즈카 차 카페’
  - 폐교가 된 초등학교를 ‘평생 학습의 마을 만들기’의 거점으로 삼아 지역 커뮤니티를 재생하자는 제안

([www.pref.kyoto.jp/chiikiriyoku/1226395532303.html](http://www.pref.kyoto.jp/chiikiriyoku/1226395532303.html))

### 4. 서비스 기업 관련 9대 정책 실시 (상하이)

○ 상하이市는 2009년 상하이 경제발전의 핵심으로 서비스 산업의 원만한 성장을 꾀함.

- 관련 정책 9개 시행 항목은 다음과 같음.
  - 현재 1000개 주요 기업과 1100개 성장형 중소기업, 100개 중요 품목, 10대 중요 산업, 10개소 중요 지역을 감시·감독 대상으로 정함.
  - 중국내·외 시장 개척을 적극 지지할 방침임. 2010년 엑스포, 기초설비 건설 프로젝트나 국유기업 투자 시 동등한 조건 아래 중국산 브랜드를 우선 선택하고, 핵심기술 제품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상하이市 핵심 발전 산업인 철강, 자동차, 조선, 석화, 설비제조, 전자통신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임.

- 생산형 서비스 산업 발전을 확대할 방침임. 자문, 임대, 위탁 등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서비스 통합 인프라를 구축함.
- 철강, 자동차, 석화 등의 산업에서 기업 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임.
- 관련 중소기업의 주식 상장을 적극 도모함.
- 중소기업 외상·어음 기간 연장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유도함.
- 유해성 화학품 생산 기업과 생산 능력이 낙후된 기업을 정리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
- 선진기술 도입과 첨단기술 산업화를 추진할 방침임.

([www3.xinhuanet.com/chinanews/2009-01/10/content\\_15412950.htm](http://www3.xinhuanet.com/chinanews/2009-01/10/content_15412950.htm))

## 5. 신차 구입하면 세금 감면에 보조금도 지급 (중국)

- 중국은 신차 구입 시 세금을 감면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자동차 산업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섬.
  - 2009년 1월 발표한 자동차 산업 진흥정책에 따르면, 배기량 1.6L의 차량에 대해 구입세를 10%에서 5%로 감면하고, 농민이 신차를 구매하면 1000위안(약 20만 원) 미만의 보조금을 지원함.
  - 상하이 폭스바겐은 차량보유자가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하면 3000위안(약 6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 상하이 폭스바겐의 신차 구입 보조금은 중국 정부가 발표한 지원금보다 많은 것으로, 좀더 적극적인 지원책임.
    - 이러한 지원책으로 상하이 폭스바겐의 차량 판매량이 30% 이상 증가함.

([auto.anhuinews.com/system/2008/12/31/002184404.shtml](http://auto.anhuinews.com/system/2008/12/31/002184404.shtml))

### 6. 노숙자 귀향 지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 리우데자네이루市는, 도시에서 성공하겠다는 꿈을 갖고 상경했으나 여러 이유로 노숙자가 된 시민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음.

- 2008년 상반기, 市 사회복지국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프로그램을 통해 250여 명에게 귀향 교통편을 제공함.

- 고향 정착에 가족, 친척, 친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역 행정국에 연락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함.

([www.rio.rj.gov.br/pcrj/destaques/assistencia\\_social\\_migrante.htm](http://www.rio.rj.gov.br/pcrj/destaques/assistencia_social_migrante.htm))

### 7. 난방비와 보조금 혜택 홍보하는 ‘알 권리’ 캠페인 (런던)

○ 런던市는 노인과 생활보호대상자가 난방비 절감 혜택을 받고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알 권리’(Know Your Right) 캠페인을 전개함.

- 최근 조사에 따르면, 많은 연금생활자가 보조금의 1/3을 찾아가지 않고 있음.

- 연금생활자는 주당 50파운드(약 10만 원)를 수령할 수 있는데, 연금생활자가 받아가지 않는 수령금은 5만 파운드(약 1억 원)에 달함.
- 생활보호대상자가 매년 수령해 가지 않는 금액은 연 1400파운드(약 2800만 원)임.

- ‘알 권리’ 캠페인은 연금생활자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보조금에 대해 병원,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와 여러 기관을 통해 알리고자 함.

- 추운 겨울에 보조금을 받으면 난방비를 내는 데 도움이 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0437](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0437))



## 8. 공공기관의 계층 간 격차를 줄이도록 법적 의무 부과 (영국)

- 영국은 ‘사회적 유동성 백서’(Social Mobility White Paper)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사회·경제적 능력 차이로 인한 계층 간 격차를 줄이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계획을 최근 발표함.
- 계층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공서비스 약정’(Public Service Agreement)이 이미 있지만, 법적 의무는 없음.
  - 이번 계획을 통해 집안 배경, 출신지로 인해 생긴 불평등을 공공기관이 적극 해결하고자 함.
-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음.
  - 문제가 심각한 학교에 3년 동안 근무하는 교사에게 1만 파운드(약 2000만 원)를 보너스로 지급
  - 가장 열악한 주택지에 1500만 파운드(약 300억 원) 투자
  - 10대 청소년의 사기 진작을 위해 1000만 파운드(약 200억 원) 투자
  -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유아교육을 하는 데 5700만 파운드(약 1140억 원) 투자

([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873456](http://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873456))

### 한 줄 뉴스

- 파리
  - 에너지 절약 위해 시청사 소등시간을 자정에서 밤 10시로 앞당겨
- 런던
  - 경제활성화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실직자 대상 버스요금 50% 할인 계획 발표

### 9. 사회연대 정책 확대와 역동적인 도시발전 계획 추진 (파리)

○ 파리는 신년사를 통해 ‘사회 공동협력 체제 안에서 살아가기’를 모토로 사회 연대를 강조하고, ‘역동적인 파리의 발전’을 지속 과제로 삼음.

- 사회연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발표함.

- 은행대출이 불가능했던 저소득층에게 2% 이자로 소액대출을 해주는 정책을 파리의 모든 구로 확대 실시
- 수입의 30%에 달하는 월세를 내는 시민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 마련

- 역동적인 파리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발표함.

- 2008년에 비해 18% 이상 오른 140억 유로(약 25조 원)를 공공사업에 투자
- 경제활동 및 고용 서비스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특히 환경전문 기업에 시장을 개방

- 파리는 ‘파리 메트로폴’(ParisMétropole)이라는 민관운영협회를 통해 교통 및 주택정책 서비스를 서로 연결하고 각 기관별로 재정적인 협력을 이끌어내 성공적인 사례를 남긴 바 있음.

- 2009년에는 이 협회의 활동으로 각 구청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역분담금이 지급될 예정임.

([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2&document\\_id=63434&portlet\\_id=815](http://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2&document_id=63434&portlet_id=815))

### 10. 웹사이트 통해 민관이 함께 건축 감독 (베를린)

○ 베를린시 도시발전부는, 건설 투자자나 참여자, 건축 감리·감독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독일 최초의 ‘건축 감독 웹사이트’(www.berlin.de/bauaufsicht)

를 오픈함.

- 이를 통해 감독관청 관련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돼, 관련 종사자와 관청직원이 동일한 관점에서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림.
-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신청양식, 전산화된 건축·허가 처리, 건축 감독 관련 법 규정, 부차적 법규에 관한 안내지침, 건축 감독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임.
  - 건축 감독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법 규정이 모호하거나 없어 복잡한 사항에 대해 판정을 도와주는 도구로, 데이터뱅크를 통해 종합적으로 자료를 고찰한 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임.
- 새로운 사례나 소식을 갖고 있는 이용자는 언제든지 뉴스레터를 통해 정보를 올릴 수 있음.
- 이 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할 때 법적 확실성, 건축감독청의 믿을 수 있는 실시간 정보, 지역구 간의 통일화된 시행방식이 확보됨.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901/nachricht3315.html](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901/nachricht3315.html))

## 11. 민간기업과 협력해 식물원 보수·유지 (브라질 쿠리치바市)

- 쿠리치바市는 市 식물원을 한 화장품 회사가 ‘입양’하게 하고, 앞으로 식물원의 보수, 유지, 리폼 공사 등을 이 화장품 회사에 맡김.
- 화장품 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시정부는 연간 68만 4000헤알(약 3억 4000만원) 상당을 절약할 수 있게 됨.
  - 이 금액은 市의 다른 공원 및 광장을 위해 투자할 예정임.
- 협력 기간은 12개월이며 최대 5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함.
  - 시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화장품 회사는 식물원 내에 식물원 이미지와 부합되는 자사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음.

([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15245](http://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15245))

## 도시 환경

### 12. 시민과 함께 기후변화 대처에 나서 (델라웨어주 윌밍턴市)

- 델라웨어주 윌밍턴市는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윌밍턴 기후 지속가능성 계획’(Wilmington’s Climate Sustainability Plan)을 수립하고 운영할 예정임.
-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윌밍턴市의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델라웨어 해안의 수면상승 문제에 대해 주민과 의논하고 자구책을 마련할 계획임.
  -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 강화, 해안 및 강 하구 연안 정비(방재사업), 친환경 도로(자전거 도로 및 도보) 확장 등을 통해 더 나은 대기환경과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심지역 확대 및 홍수방재 시설 확충에 힘을 기울이고자 함.
  - 이 사업은 교토 의정서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진행될 예정임.
- 市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 규제 강화가 바로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주민과 청소년 세대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과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함.

([www.ci.wilmington.de.us/climateplan/index.htm](http://www.ci.wilmington.de.us/climateplan/index.htm))

### 13. 사라져가는 참새가 돌아오는 도시공원을 만들자 (런던)

- 런던市의 민간단체가 주도해 참새가 돌아오는 도시공원 만들기 사업을 진행함.
- 영국 왕립조류보호협회(RSPB: Royal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Birds)는 런던市 전역의 참새 수가 1994년 대비 64%나 줄어들었다고 지적하고, 참

새가 서식하기 알맞은 야생 식물을 20여 개 공원에 심을 계획임.

-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매립지 사용료로 징수된 세금으로 충당하며 향후 3년간 총 17만 파운드(약 3억 4000만 원)를 사용할 전망이다.
- 시민이 이용하는 도심 녹지를 사람과 야생 동식물이 어우러지는 생태 터전으로 복원·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야생조류 관련 전문지식과 복원기술을 가진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관련 공공기관은 후원 역할을 담당하는 추진방식도 주목할 만함.
  - ‘참새가 돌아오는 공원 만들기 사업’과 함께 ‘나비와 나방이 살기 좋은 공원 만들기 사업’도 조만간 시작할 계획임.

([news.bbc.co.uk/1/hi/england/london/7827224.stm](http://news.bbc.co.uk/1/hi/england/london/7827224.stm))

### >>> 전문가 검토의견

- 서울시의 경우 강서 습지, 고덕 수변생태복원지, 암사동 한강둔치 복원 등 한강 복원을 통해 큰기러기와 말뚝가리 등 멸종 위기종을 비롯해 조류 종수 및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복개하천 복원 등 도시 내 하천복원 사업 및 대규모 공원조성 사업도 조류 서식지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최근에는 각종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녹지공간 조성 시 조류서식을 위한 수종을 선정하고 새집을 설치해야 하는 등 서울에서 흔히 서식하는 박새나 직박구리 등을 목표종으로 다양한 비오톱을 조성하고 있음.
- 민간단체 주도의 녹지관리 및 생태프로그램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생태복원의 체감효과가 큰 야생조류의 서식지 조성 및 관리 또한 조류 관련 협회와 동호회 등 민간단체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송인주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injusong@sdi.re.kr)

## 14. 녹색경영으로 불황 극복하는 기업 후원 (런던)

- 런던市는, 市 주도로 적극 추진해 온 업계 모임 및 민관 파트너십의 성과를

- 알리고 환경을 고려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우수기업을 선정해 적극 홍보함.
- 시청에서 열린 ‘Green 500’과 ‘Better Buildings Partnership’ 공동모임에서 현재까지 가입한 총 160여개 기업체를 소개함.
    - 1단계로, 에너지 절약 등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자체 점검을 마치고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탄소저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2단계로 돌입한 우수 기업 17개소의 모범 사례를 치하함.
    - 유명한 콜택시 업체인 ‘애디슨리(Addison Lee)社’는, 택시 대기장소와 고객위치를 연계해 운행거리를 하루 1만 6000마일 정도 단축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3년 동안 18만 5000파운드(약 3억 7000만 원)의 경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Green 500은 환경경영으로 환경 보전과 기업 수익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들이며, Better Buildings Partnership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친환경 건축 관련 업체와 시-자치구 간 파트너십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0397](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0397))

### >>> 전문가 검토의견

-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호의 실질적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보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우선되어야 함. 나아가 공공과 민간부문의 상호 협력은 ‘참여와 유인’을 통해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탄소 저감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녹색경영은 최근의 ‘저탄소 녹색성장’ 이슈를 구체화하고 생활화할 수 있는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음.
- 한 기업의 녹색경영과 기업 및 정부 간 친환경 파트너십 구축은 부수적으로 시민이 에너지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도록 하는 교육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특성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참여와 유인’을 촉진하기 위한 녹색경영의 활성화 및 파트너십 구축 등이 반영되면,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호라는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임.

- 특히 市·기업·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저탄소 녹색경영 촉진 간담회’(가칭)를 통해 실천사례 발굴 및 홍보를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임.

/김운수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장(woonkim@sdi.re.kr)

## 15. 기후보호 위해 시립 임대주택회사 참여 (베를린)

- 2010년까지 베를린市의 기후보호 목표는 1990년과 비교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 줄이는 것임. 베를린市의 6개 임대주택회사는 새로운 기후보호 협약에 서명함.

- 이번 협약에 따라 6개의 시립 임대주택회사는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6년과 비교해 최소한 10% 줄일 계획임.
  - 이것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매년 5만 6000톤의 줄인다는 의미임.
- 1990년부터 시립 임대주택회사들은 주택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아파트 보수와 현대화에 투자해 왔음.
  - 현재 85%의 아파트가 개조돼 에너지 효율이 충분히 높아진 상태지만 이들의 관점에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도 많음.
  - 난방시설 교체를 통한 효율의 극대화, 친환경 난방재료 사용, 창문틀 교체, 친환경 전기 등을 적극 도입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전체를 위한 에너지 개선책도 고려 중임.
- 베를린市는 이번의 임대주택회사들의 협약이 2010년까지 베를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축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음.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01/13/118335/index.html](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01/13/118335/index.html))

([www.ad-hoc-news.de/senat-und-staedtische-wohnungsunternehmen-](http://www.ad-hoc-news.de/senat-und-staedtische-wohnungsunternehmen-)

>>> 전문가 검토의견

- 베를린市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임대주택회사와 최근 협약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부문이 적극 참여하는 모범사례임. 나아가 임대아파트 주민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더욱 기대됨.
- 탄소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효율에 관한 달성목표 제시,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노력은 ‘저탄소 녹색경영’의 일환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큼.
- 서울시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 에너지 선언 목표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베를린市와 같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 민간부문에서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기 쉬움.
- 베를린市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대한 민간의 그릇된 인식을 최소화하고, 장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김운수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장(woonkim@sdi.re.kr)

16. 자연형 하천 복원으로 야생동물도 살게 하고 침수도 예방 (런던)

- 런던市는 콘크리트 제방으로 둘러싸여 하수구로 전락한 도시 하천을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복원하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임.
- 런던市와 영국 환경청, 템스 하천복원 트러스트 등 민간단체가 파트너십을 통해 ‘런던 하천 실행계획’(London Rivers Action Plan)을 공동 수립함.
  - 2015년까지 총 10마일(약 16km) 구간의 하천을 복원할 경우 수달 등 야생 동식물이 돌아오는 살아있는 하천으로 만들고, 침수피해 방지 등으로 강과 어울려 사는 안전한 도시재생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함.
- 콘크리트 제방을 걷어내면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진 집중호우 시 갑자기 늘



어나는 유출수를 잘 흡수하고 배수함.

- 영국 환경청은 전통적인 토목형 치수제방보다 장기적으로 환경도 살리고 홍수도 예방하는 자연형 하천 복원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음.

- 환경청에 따르면, 이미 복원된 구간에서 치수와 생태 환경뿐 아니라 도심 녹지를 찾는 시민이 늘어 청소년 범죄도 줄어드는 등 순기능도 포착됨.

- 지난 15년 동안 런던시내 하천 복원이 완료된 구간은 약 22.5km임.

([news.bbc.co.uk/1/hi/england/london/7816453.stm](http://news.bbc.co.uk/1/hi/england/london/7816453.stm))

## 17. 희소 금속자원 재활용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 회수 실험 (도쿄)

- 도쿄도는 전기통신사업자협회, 정보통신네트워크산업협회, 구청과 제휴해 2개월간 휴대전화 단말기 회수 실험을 실시하고 휴대전화 재활용에 대한 의식을 조사함.

- 회수된 휴대전화는 약 2000대로, 여기서 금 25g, 은 156g, 동 9220g, 팔라듐 12.6g, 코발트 4311g을 회수함.

- 휴대전화 재활용에 대한 의식조사에서는 60~70%의 응답자가 휴대전화의 재활용에 대한 마크나 그 의미를 모른다고 대답함.

- “개인정보 누설에 대한 우려만 없으면 재활용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응답자의 70~80%였음.

- 회수 장소로는 휴대전화 판매점 이외에 편의점, 전철역 등을 희망함.

- 향후 휴대전화 회수 시스템을 강화하고, 행정기관의 협력을 얻어 회수거점을 확대할 것을 검토함.

([www.metro.tokyo.jp/INET/CHOUSA/2009/01/60j1f200.htm](http://www.metro.tokyo.jp/INET/CHOUSA/2009/01/60j1f200.htm))

## 18. 이산화탄소 저배출 경제전략 발표 (영국)

- 영국 보수당은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며 경제를 발전시킬 계

획을 담은 ‘혁명’(Revolution)을 발표함.

-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와 쓰레기 처리 장소 지정
  -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모든 종류의 발전기를 허용하고 지방정부가 이와 관련된 허가권을 부여
  - 대규모 해양에너지 공원 네트워크 건설을 위한 신속한 도시계획 허가
  - 이산화탄소 집적장비 개발
  - 집적된 이산화탄소를 북해까지 옮길,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 설치
- 이 계획은 에너지를 화석에너지에서만 얻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혁신적인 재생 에너지 원천에서 획득하는 것을 강조함.
  - ‘영국 풍력에너지협회’(British Wind Energy Association)는 풍력·파도· 밀물·썰물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번 계획을 옹호함.

([www.planningresource.co.uk/bulletins/Planning-Resource-Daily-Bulletin/News/874202](http://www.planningresource.co.uk/bulletins/Planning-Resource-Daily-Bulletin/News/874202))

## 19. 환경보전형 농업과 유기농업 추진 (도쿄)

- 도쿄都 산업노동국은 2009년 안에 ‘환경보전형 농업 추진 기본방침’을 개정하고 ‘유기농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환경보전형 농업 추진은 환경보전형 농업을 농업의 기본으로 삼고 모든 생산자가 환경보전형 농업에 적극 임하도록 하는 것임.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살려 도시환경 개선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 구체적인 시책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의식 계발, 환경 부하를 줄이는 농산물 인증 확대,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농작물 재배 촉진 등이 있음.
- 유기농업 추진은 환경보전형 농업 정책의 하나로, 유기농업에 임하는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함.
  - 유기농업 생산자 포럼을 열어 상호 교류를 돕고 기술이나 사례를 정리해 기술자료로 체계화하며 유기재배 지침도 마련함.

## 도 시 교 통

### 20. 교통공사가 적극 나서 영화 촬영하도록 정보 제공 (런던)

○ 런던 교통공사는 홈페이지에 ‘촬영정보란’(Filming Opportunities)을 별도로 만들어 템스강과 지하철 등 교통시설을 이용한 영상물 촬영 정보를 제공함.

- 템스강, 도크랜드 경전철(DLR), 지하철, 버스 등 시설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런던항만청(Port of London Authority)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템스강에 대해서는 최근 촬영 사례와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안내함.
  - 도크랜드 경전철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허가요건, 비용과 촬영가능시간, 보험과 촬영 제한 사항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안내함.
- 가장 돋보이는 섹션은 교통공사 산하 지하철국에 ‘영화 부서’(London Underground Film Office)를 설치해 운영 중인 지하철에서 촬영한 정보임.
  - 다른 섹션과 다르게 텍스트가 아닌 안내 동영상을 제일 위에 배치함.
  - 사진으로 보는 인기 촬영지 및 추천 촬영장소, 런던 지하철을 배경으로 한 상영작 포스터 등 영상 정보를 적극 활용함.
  - 이와 함께 촬영 인허가 정보도 제공함.

(www.tfl.gov.uk/corporate/media/1511.aspx)

### >>> 전문가 검토의견

- 공공시설에서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촬영을 허용하고 사용료를 받아 시설운영에 도움을 주는 방식임.
  - 공공부문의 운영 수익모델 중 하나로 의미가 있으며, 市와 민간부문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사례로 판단됨.
- 서울시도 市가 운영하는 지하철 등 교통시설에서의 촬영을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 보장함으로써 미디어 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공부문의 수익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이로 인한 공공부문 수입이 시설운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지는 의문임.

/손기민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kmsohn@sdi.re.kr)

## 21. ‘도로교통 게임’ 통해 도시를 공유하자 (파리)

○ 파리는 ‘파리를 공유하자’(Partageons Paris)는 이름으로 파리 도로교통 게임 사이트를 신설함.

- 이른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교통게임으로, 파리 공공지역과 교통을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임임.
  - 도로교통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덜 시키며 좀더 경제적인 교통체계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음.
- 초기화면에서 캐릭터와 자전거·자동차 등 교통수단을 선택한 다음 교통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아가는데, 각 교통수단에 따라 도로안전 수칙, 환경과 경제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쌓임. 게임이 끝나면 각 분야별 결과가 최종합계로 나타남.

([www.paris.fr/portail/deplacements/Portal.lut?page\\_id=2](http://www.paris.fr/portail/deplacements/Portal.lut?page_id=2))

### >>> 전문가 검토의견

- 파리의 도로교통 게임 사이트인 ‘파리를 공유하자’(Partageons Paris)는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하면서,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교통안전 확보와 맑은 공기가 시민에게 더 이로울 수 있다는 점을 남녀노소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임을 통해 홍보하며, 참신한 아이디어도 반영하는 창구가 될 수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창의아이디어 제안’과 ‘천만상상오아시스’ 등과 같은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 창구가 활성화돼 있는 만큼, 시민에게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자연스럽게 이해시키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고려해 볼 가치가 있음.

/신성일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ssi@sdi.re.kr)

## 22. ‘핸드폰 주차’ 확대 시행 (베를린)

- 2009년 1월 베를린 상공회의소 회장과 지역구 경제부서, 교통부서 담당자는 베를린 시내의 Fasanen 도로에 모여 주차 자동판매기에 핸드폰 주차에 관한 이용안내문을 붙이는 행사를 가졌음.

- 베를린시는 시범적으로 2005년부터 핸드폰 주차를 운영해 왔음.
  - 핸드폰 주차는 자가용 운전자가 핸드폰 주차를 위한 통합 인터넷 사이트 ([www.mobil-parken.de](http://www.mobil-parken.de))에 자동차번호를 등록하면, 핸드폰 주차 사업체에서 이용 코드번호가 적힌 주황색 스티커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음.
  - 운전자가 도로 주차를 시작할 때 스티커의 이용 코드번호로 전화해 주차 도로의 지역번호를 입력하고 주차를 마칠 때 다시 한 번 전화를 하면 주차 장소와 이용시간이 입력됨. 한 달 동안의 모든 주차내역이 종합 계산돼 월 말에 결제되는 방식임.
- 지금까지는 도로주차를 위해 운전자가 주차 자동판매기에 이용 예상시간만큼 돈을 넣고 주차표를 끊어 주차하는 방식이었음.
  - 잔돈이 없거나 주차시간이 예상한 것보다 오래 걸릴 경우, 차가 견인되거나 벌금을 물어야 함.
  - 핸드폰 주차방식을 통해 운전자는 주차료뿐 아니라 벌금도 줄일 수 있고, 주차시간 동안 여유있게 용무를 볼 수 있게 됨.
- 도로에 주차된 차가 핸드폰 주차로 주차된 것인지 무단주차된 것인지는 도로에 설치된 주차단속장치와 단속요원의 인터넷접속 컨트롤 장비로 확인됨.



([www.berlin.ihk24.de/servicemarken/presse/IHK\\_Berlin\\_aktuell/Handyparken\\_leichter.jsp](http://www.berlin.ihk24.de/servicemarken/presse/IHK_Berlin_aktuell/Handyparken_leichter.jsp))  
([www.mobil-parken.de](http://www.mobil-parken.de))

## 한 줄 뉴스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 장애인이 호텔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 호텔 접대 매뉴얼' 발간
- 북경市 조양區  
- 경제위기로 인한 대규모 실업사태에 대비해 국유기업은 당분간 감원하지 않기로 공포